

돈구(頓宮)

돈구(頓宮)는 특정한 의식이 행해질 때 우사 신궁의 신들을 일시적으로 모시기 위해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돈구의 두 건물 중 하나는 신을 위한 신전으로, 다른 하나는 신이 타는 가마인 미코시를 보관하는 전용 창고로 이용됩니다. 돈구는 여름에 열리는 고신코사이(御神幸祭) 축제(御神幸祭)에서 조구(上宮, 위쪽 신사)의 신들을 2박 3일간 일시적으로 모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신코사이 축제가 열리는 동안 돈구에서는 스가누키라는 우사 신궁 특유의 정화 의식 등 몇 가지 의식이 행해집니다.

‘돈구’라는 이름은 예로부터 신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 이름대로 유명한 신사들이 일정 기간마다 본전(本殿)을 재건할 동안 일시적으로 신을 모시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우사 신궁에서는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33년마다 신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재건할 때마다 조구와 계구, 와카미야(若宮) 신사의 신들을 모시기 위해 특별히 3개의 돈구를 지었는데, 이들 돈구는 재건이 완료되면 곧 해체되었습니다.

현재의 돈구는 쇼와의 대재건(1932~1941) 때 지어진 상설 건물로, 신전의 수리보다는 매년 열리는 고신코사이 축제에서 미코시를 안치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고신코사이 축제 기간 동안에 신을 모시게 되기 전의 돈구는 1680년에 지어진 것으로 신쿄 다리 근처의 오토리이(큰 도리이) 바깥쪽에 세워져 있습니다.